

영국 학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78 10월호

한 사람의 중요성

어느해 가을이었던 것 같다. 여의도공항기지 지휘소에서 경험하였던 일이다. 갑자기 지휘탑에서 비상벨이 울려왔다. 내용인즉 C-46수송기 한대가 지금 비상착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의 두 앞바퀴가 나오지를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동체착륙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삼시간에 온비행장은 긴장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고처리반에서는 소방차를 총동원하여 활주로 중간 중간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엠브런스가 동원되고 활주로는 소화약품이 뿌려졌다. 기지사령관 이하 온 참모들이 모두 활주로 앞에 나와서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고의 항공기는 지금 막 비상착륙을 하려는 순간이다. 그 비행기 안에는 30여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그때처럼 실감나게 느껴보게 한 적이 별로 없었다. 조종사 한 사람의 성공실패는 그 한 사람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조종사의 조종간 여하에 모든 승객들의 생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온 비행장이 가슴 조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 비행기는 바퀴가 나오지 않은 채 그대로 동체착륙하였다. 드디어 동체착륙에 성공, 그 육중한 체구를 활주로 중간에 와서 멈추어 세웠다.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착륙하였다. 그 후 그 조종사는 장한 조종사로 뽑혀 웰던상(Well-done Prize)을 받았다. 조종사 한 사람의 성공이 이처럼 많은 생명을 무사하게 해주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한강교 위를 지나가던 버스 한대가 다리 아래로 굴러떨어져 수십명의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린 참사였다. 그 사고는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다.

성경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관한 실제적인 사실과 교훈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 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의 범치는 그 이후에 오고오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이 거기 나온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읽어보게 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실로 한 사람은 중요한 것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이와같은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타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루에 3천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

또 바울 한 사람의 희생적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처럼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지난 9월 23일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육군 제1사단 연병장에서는 진중 합동세례식이 베풀어졌다. 그날 세례받은 장병이 3천 2백4십9명이나 되었다. 3천수백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그중에는 대대장도 있고 참모도 있었다. 대대장 부인도 함께 세례받는 모습을 보았다. 3천명 이상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역사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격을 금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금년 목표는 5천명이 세례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굉장한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저 놀라고 감격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맘과 눈물과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군목 한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직접 내무반을 찾다다니며 전도하여 믿게 한 군중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들 0사단 이하 모든 군중사병들을 특별 훈련시키고 있다. 군중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군대안에 파송된 선교사(missionaries)들이다. 우리가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고 하는 이것이 곧 군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60만대군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일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요 또 이것은 군목들에게만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군목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 과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총현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해요 축복이다.

바라기는 0사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밖의 부대에까지도 우리 교회가 진중세례식을 주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 하여진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은 이토록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주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10월의 행사

- 10/1 정기 제직회
 10/6 교회 철야기도회(기도원에서)
 10/8 남전도회·권사회·산업전도회 월례회·남전도회 헌신예배
 10/15 여전도회·출판위원회·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재정위원회
 10/10 수도노회(왕십리교회당)
 10/22 월간충현 10월호 발행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 월례회·여전도회 헌신예배
 10/29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
 10/31 정기당회

제 6 권 제58호

월간충현

10월호 차례

<권두언> 한 사람의 중요성/주간.....2
<이달의 말씀> 선한 일에 충성합시다 /김창인 목사.....4
<이렇게 답한다> 죄 사하는 문제/정상우 목사.....6
<특집 I> 기독교인과 문화 성경적 문화관/손봉호 박사7
<특집 II> 여름계절학교 평가보고 계절학교(여름) 총결산/고제원 집사.....11
<전도 여행기> 감사! 할렐루야! 아멘!/한정배.....17
<1200자 칼럼> 심령대부흥회/오태용 집사18
<주간지 만나> 시편에서.....20
<구역장노우트> 임종과 강제를 돕는 길④ /백성룡 목사21
<구역공과> 창세기(11월분①·②).....22
<교회소식>.....24
<편집후기·광고>.....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실로암 못가에서> 참 사랑이란?28

표지설명 : 지난 9월 하순 육군 제○○○○부대에서
 는 3천여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었다(월내는 당
 회장 김창인 목사의 모습).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선한 일에 충성합시다

성경/고전 4:1-5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우리는 성도로서 선한 일에 충성하여 성공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해택을 입혀 주고 후손들에게 복의 기관을 물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복도 받고 영혼은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1. 선한 일에 충성하면 인격의 값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가치는 여러 가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 보입니다. 권세가 당당하면 그 권세 때문에 인격의 값이 있어 보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기술이 능해도 얼굴이 말끔하게 생기고 몸이 튼튼하여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돋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권세·지식·건강·인물 등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큼 많이 하였느냐에 따라 인격의 값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에 돈을 가지고 사치만 하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약자를 괴롭히면 그 권세, 그 돈, 그 지식은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에게는 해를 끼치는데 보탬이 되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사람 앞에는 부끄러움과 고생과 멸망을 자취하는 불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우리 나그네 생활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선한 일에 충성합시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12월이 되면 새해에 일할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서리집사의 임명이 있고, 구역장·권찰의 임명이 있고, 주일학교 각부 교사의 임명이 있고, 성가대원의 임명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에서 임명받은 주님의 종들은 물론 주님과 함께한 자로 충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직접 임명받지 아니한 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은 틀림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는 선한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2. 선한 일에 충성할 목적을 세우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편안하고,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나 자신이 많은 지식과 권세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

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딸출리며 자기 일에 충성하는 부모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목적을 세우는 데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끼치며 살자는 것이고, 세째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네째 그 다음에 내 평안과 내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모두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3. 선한 일에는 어떤 거들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세째 이웃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 네째 나보다 약하고 어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진리와 지혜와 물질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고아원에서 자라난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제가 주례를 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뉘를 매달려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점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누구도 모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모 없는 고아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 왔으니 자기가 자란 고아원이 있던 지방에 70세 이상되신 분들을 해마다 한번씩 꼭 찾아가 위로하고 인사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자란 지방의 고아원이 없어진 것을 안 이분은 그 지방의 국민학교에 해마다 성탄절 때 찾아가 1,000여명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는 데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다섯 사람, 열 사람을 키웁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고아 출신으로 저만큼 성공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누구도 모르는 숨은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이 걷는 걸음입니다.

비록 멸망할 죄악을 범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 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그 영혼을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구도 모르는 무릎꿇고 기도하여 주는 일 등은 우리가 하여야 할 선한 일들로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합시다.

4. 선한 일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1)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수양을 쌓고 결심을 든든히 하고 좋은 배경을 얻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수양이나 자기 결심이나 어떠한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도 악마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열흘이 못 가고 한 달이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악마를 이기신 예수님, 생명의 피를 주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다 소유하시고 계시는 부요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면 선한 일이 됩니다.

(2) 예수님처럼 일해야 됩니다

첫째,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의 목표요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의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 개인의 욕심에 매달린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전부를 버리고 피로우나 즐거우나 죽을 자리에 가면서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이 만민을 구속하는 사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합니다. 나 자신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끌리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입이 있으니 그 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말을 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말과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모략과 중상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놓고 천 사람, 만 사람이 자기 입 가지고 마음대로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답을 다 하려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시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로 사람의 말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되면서 일할 수 있어야지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벌써 끝장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

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일을 바로 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실 노는 것은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고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쉽고 재미있다고 놀기만 하면 남보다 뒤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공부도 뒤떨어지고 사업도 뒤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망신만 당하고 영육이 아울러 불행해져서 천대꾸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하기는 힘들습니다.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일만 하려면 따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한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가슴에 꽃이 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합시다.

네째, 하나님께 보고서를 바칠 것을 기억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하려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바칠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합시다.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세상에서 한 것을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전사님은 전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또 구역장과 권찰은 구역장과 권찰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각지회의 임원은 임원으로서, 아니 어느 부서에 속했던지 안했던지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심일조를 바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일합니다.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기회 가기 전에 일합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려면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 고집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힘으로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기 위하여, 자신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순서는 바꾸지 말고 주 안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피고 여러분의 생활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높이며 남에게 유익을 준 다음에 칭찬을 듣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어 마음이 흐뭇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약속과 경고를 선포하는 권한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 22, 23)는 이 권력의 뜻을 알려 주세요. 죄 사하는 문제가 어떤 특정인에게 위임되었다는 뜻인지요?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①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며, ②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막 2: 7; 시 32: 5; 사 43: 25).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죄하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의 합법적인 계승자인 가톨릭의 성직자(신부)들에게 수여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주교의 성직자의 판결에 따라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정죄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마술적인 면죄(免罪)와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 받으려면(세례받고 난 후에는) 신부의 귀에다 대고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세례받은 후에 범죄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고해성사(告解聖事)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천주교 요리문답 제236조 참조).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기록을 자세히 상고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요한 20: 23)을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또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죄의 권한을 이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임된 복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심이 오직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분부이며(마 28: 19; 행 2: 8)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강림을 약속하신 것이 오직 사도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이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행 2: 1-4; 엡 5: 18).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

상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만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사도들에게만 주시기로 제한하셨으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시는 위대한 명령과 성령의 약속을 차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하신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시며 행사하시던 죄 사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죄에 대한 복음의 약속과 경고를 선포하는 권한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과 불신자에게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은 사람들의 사적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라고 주신 사죄의 권한이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주신 권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사도들은 결코 오늘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요 20: 23)을 재판의 권한이나 사면의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권능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에 받아들였던 것이며(행 2: 38; 3: 19; 13: 38; 22: 16; 26: 17, 18),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외의 방법으로 오늘날 천주교처럼 고해성사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사도들이나 신부들)에게 사죄의 권한을 위임하신 말씀이 아니며 그때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복음전도 그것이 가질 영권(靈權)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문화관



손 봉 호 박사

(총신·외대 교수)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각 사회단체에서도 10월이 되면 문화행사를 하기에 바쁘기에 그지 없을 것이다. 우리교회에서도 각부 주일학교에서는 문화행사를 많이 할 것이다. 월간총현에서도 10월 특집으로 문화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청년부에서 금년 4월에 특강을 한 손봉호 박사의 성경적 문화관을 정리하여 보았다.

(편집자)◇◇◇

성경 : 로마서 11장 36절-12장 2절-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기독교인은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열었는데 신문 만화에서 소위 문화인이라고 하여 수염이 멋있게 나고 뺨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의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뭔가를 풍자하려는 것이겠는데 과연 문화인이란 어떤 사람이나?

우선 영어로 한번 알아 본다면 Cultural Man, Cultured Man쯤 될 것인가? 문화인이란 말은 원래 영어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혹은 일본에서 만들어 낸 말인 듯하다.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볼 때 소위 문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는 뭔가? 비문화인이란 말은 야만인이란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야만인이고 예술하는 사람들만이 문화인이란 말인가?

우선 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 문화라는 말은 우리 동양말은 분명 아니다. 우리 옛 고전에 문화란 말이 있었는가? 고려시대, 이조시대에 그 말이 있었는가? 이 「문화」라는 말은 서양 말을 동양어로 번역한 것이다. 영어의 Culture(독일어에서는 Kultur)란 말은 콜로에(Koloe)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에서 콜롬(Kolum)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Culture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 콜로에(Koloe)란 말은 본래 “땅을 갈다”는 뜻이 있고 “어떤 장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거주한다”혹

은 “보호하고 간수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Culture라는 말은 “주어진 자연을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변형시키고, 그 자연을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또 만들어내는 과정과 결과”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문화는 자연과 대조되는 말.

그런데 이 Culture라는 말은 항상 그 대조가 되는 것이 Nature이다. 문화와 자연은 항상 대조가 된다. 주어진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Nature가 되고, 사람이 거기에서 손을 대고 많은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면 Culture가 된다. 가령 산에 있는 물을 집에 갔다 두면 그것이 정원 안에서 하나의 조경을 이루어 Culture가 된다. 그러나 산에 있는 물, 나무 그 자체는 Culture가 아니고 자연인 것이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변형을 시켜야만 그것을 문화(Culture)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손을 가했다고 해서 다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손을 대야 그것이 문화가 된다. 계획을 세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변형시켜 놓아야 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Culture라는 말은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horticulture라는 것은 풀을 잘 다듬어서 정원을 잘 가꾼다는 뜻이다. 라틴어로 hortus는 정원을 말한다. 또 cure란 말이 나오는데 manicure라는 것은 손톱을 잘 다듬는 것으로 manicure에서 나온 말이고, 발톱을 잘 다듬는다는 뜻의 pedicure라는 말도 있다. 또 우리가 흔히 body building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body culture라고 한다. 즉 몸을 의식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 즉 정상보다 좀 특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을 body culture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문화라는 말 대신 문명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 역시 서양 말을 번역한 것이다. 영어

의 civilization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또한 라틴어 civies에서 나온 말이다. civies란 「시민」이란 뜻으로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노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에 사는 사람 중 대개 세사람에 한사람 꼴로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이 행동하는 것과 시민의 행동이 달랐다. 그래서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을 소위 문명이라 했는데 문명인이란 말은 로마 시민답게 행동한다, 즉 예의범절이 올바르다 혹은 에티켓을 지킨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노예와 대조된 것이 아니라 군대(military)와 대조되어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이란 말을 military engineering과 대조시켜 사용하게 되었다.

문화란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

civilization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야만인이 아닌 양반답게 신사답게 행동한다는 뜻이 되겠다. 요컨대 문화란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문명이란 그 행동거지가 좀 점잖고 에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문화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으며 자연은 문화를 창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는 사람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나 동물은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호모 파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제조하는 인간」으로 인간만이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비버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이 좋아서 큰 강에 댐을 만들어 물이 차게 되면 물 위에다 집을 짓고 산다. 이 비버는 항상 물 밑에다 집을 지어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만약 깊은 물이 없으면 이빨로 강가에 나무를 전부 썰어 넣어 댐을 막은 다음 그 물 위에다 집을 지으니 굉장히 머리가 좋은 동물이다. 그래서 캐나다 철도국에는 비버들이 댐을 막아 철도에 물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비버 댐 폭파를 전담하는 「비버 댐 폭파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비버를 문화적인 동물이라 할 수가 있는가. 만약 비버에게 문화 창조 능력이 있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댐을 만들어 집을 짓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집 짓는 기술을 수천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복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발달이라든지 기술의 축적이라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비버는 본능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아닌 것이다.

문화는 역사와 관계가 있어야

문화란 항상 역사와 관계가 있다. 문화가 없으면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역사는 반드시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 역사적이 아닌 행위는 문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철학과 역사철학은 같이 가게 된다. 대개 역사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문화철학을 해야 되고, 문화철학을 하려면 역사철학을 해야 된다. 역사라는 것은 자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형성하는 것을 역사라 하는데 이것이 축적된 결과

를 역사적 유물, 그 과정을 역사적 과정이라 말한다.

그런데 사람이 문화를 창조할 뿐 아니라 놀랍게도 문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가령 저 뉴기니아 토인과 서울의 똑똑한 대학생과의 차이가 무엇이나고 할 때 피가 달라서 하나는 문화인이고 하나는 야만인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환경을 바꿔서 서울의 아이를 뉴기니아에, 뉴기니아의 아이를 서울에 옮겨 키우면 거꾸로 되는 것이다. 결국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문화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문화가 또 인간을 변형시킨다는 사실이다.

문화인은 문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에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나? 철학이나 신학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말하기 힘든 일이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아주 고착시켜 놓지 않았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심을 받았으며 우리에게서 영혼이 있다는 점도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신학자들도 잘 모른다. 그런데도 토인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문화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즉 문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문화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면 될수록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그 문화가 더욱 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처럼 문화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 너무 소홀히 생각해 온 것 같다. 우리 크리스찬은 문화와 아무 관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화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한국 문화는 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우리는 상관받고 떠나자 할 수 있는가. TV, 전화 등을 없애버리고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 TV는 우리 방 안에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눈 속에,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을 다 넣어놓고 살면서 이 문화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살며 또 전도를 한다.

우리는 이방인 문화 속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가 완전히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복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만 다르지 그 외에는 완전히 비기독교인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의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문화와 인간은 항상 상호관계로

그래서 문화와 인간은 항상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그 문화활동조차도 내인격에, 내 신앙에, 내 세계관에 맞도록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가 다시금 우리로 더 올바른, 더 성격적으로 가까운 개인이 되도록 교회가 역할해야 한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하는

태도로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첫번째 강조점이다.

둘째로는 동물은 문화를 창조할 수 없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초월해야만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문화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 혼란에 의해서 보다 나은 상태로 될 수가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고 마는 것이 동물이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문화를 창조하면 그것이 축적되어 다음 세대에는 훨씬 달라지게 된다. 이것은 곧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문화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때에는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소위 과학문화라는 것은 서양에서 시작되었다. 서양의 자연과학은 종교개혁으로 회람적인 우주관이 파격을 당하고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연과학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유명한 과학자 케플러, 뉴턴, 가생드, 보일 등은 다 신교도들이었다. 이것은 이들이 중세를 지배했던 회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길은 문화 창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아왔다. 뱃물을 막는 것은 자연에 무언한 것으로, 산에 굴을 뚫는 것은 자연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리를 놓을 때 예쁜 처녀를 바친다든지 집을 지을 때 방향정하는 일이라든지 대문을 어느 쪽으로 내느냐는 것 등은 다 자연의 구속을 받는 일들이다. 이러한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문화 창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벌써 자연의 신격화를 배경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당시로선 다른 민족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때엔 해도 신이고 달과 별이 모두 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일월성신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땅을 갈 수 있으면 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문화창조를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자연의 연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야 문화를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목사로 노회장까지 한 이방적인 사람 헬거는 철저한 회람주의 사고자로서 그의 저서 “인간 형성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역사 철학” 가운데서 “역사의 자연 세계”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이 매력적인 말인 듯 싶으나 분석해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역사를 자연의 연장으로 본다. 즉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문화를 창조했다는 사상을 부정하고 문화란 자연이 계속해서 발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문화를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4 단계로 나누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유년기에서 노년기로 되듯 인류 문화도 애굽의 농경문화에서 로마의 문화로 장성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를 자연의 연장으로 본 사람은 한 줄이 아니다. 이들 문화철학자들의 사상을 분석해 보면 문화 창조가 인간의 특권, 인간만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사상을 부인하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문화를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에 의한 형성, 발달로 볼 때는 그 문화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나쁜 점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

그런데 문화를 자연의 발전의 결과로 보게 되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인간이 책임을 안지고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유의 지하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담양 일가죽 수는 중독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했지만 한강수 오염 문제라든지 자동차 공해 문제 등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윤리가 작용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트럭이나 버스보다 승용차의 배기 가스가 더 위험스런 것인데 마이카 붐에 편승하여 내 차 내 맘대로! 라는 기치 아래 차를 굴린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사회의식을 개발해서 자연의 실수가 아닌 인간의 실수인 공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왜 생기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문화철학자들은 인간이 그 생리학적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문화를 창조하였다고 말한다. 예컨대 이빨은 법의 그것보다 훨씬 약하고 다리는 개나 사자보다 훨씬 약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생존경쟁에 질 것 같으니까 생리학적인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고 대포를 만들고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 것이 곧 문화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사람이 문화를 만든 것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피지은 인간의 불안한 심정이 가인의 말 가운데 드러나 있으며 그의 후손들을 통해 문화가 시작된다. 즉 범죄한 인간의 불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문화적 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다.

문화는 죄의 산물

여기서 문화는 죄의 산물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축적해서 하나님과 대항하고자 하는데서 문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문화를 창조하도록 명령해 두셨던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이는 사람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피조물을 이용

해 살아라는 뜻인 것이다. 그 뒤에 보면 땅을 경작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경작이라는 것은 굉장한 문화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로 문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의 두가지 양상

여기에 문화의 두가지 양상이 나와 있다. 하나는 켄지는 인간이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힘을 축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두가지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항상 힘과 관계가 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자유롭다는 말이고 동시에 힘이 있어야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 위에 두시고 문화를 창조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는 인간에게 힘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화의 힘을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문화는 굉장히 발달된 것이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은 켄져져서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네모 반듯한 벽돌인 것이다. 또 자연적인 산물인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 집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문화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의 힘인 그 문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의 힘인 문화로 무엇을?

오늘날 인간이 축적해 놓은 힘은 아주 굉장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지구를 다섯번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대개 인간은 힘을 갖게 되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더 많게 된다. 여기서 사람에게 원리가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역사가 토인비는 앞으로 인간의 노동이 기계화되고 심지어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까지 기계화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 5일은 일하고 2일은 쉬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2일만 일하고 5일은 쉬게 될 때 남아도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파괴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인간은 자유와 능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기가 쉬운 것이다. 역톤경의 말대로 모든 힘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문화는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와 힘을...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점

을 알아야 한다. 문화는 결국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힘을 가져다 주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파괴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문화활동을 안하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이 지금 상당히 힘이 커져가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커져서 강국이 되면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필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문화도 조금 발전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정도에서 좀 잘만 나뉘 먹을 수 있으면 요 정도가 좋겠다 싶은 생각이다. 우리의 경제력과 도덕력이 병행해 해야 되는데 경제력은 저만큼 앞서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심이라든가 도덕적인 지식은 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온갖 부조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될려면 차라리 문화가 발달이 안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의무가 나오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인 것이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의 힘이 커지자 하나님께 항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고쳤다. 그것은 굉장한 힘이 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위대한 사람들이다” 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다. “왜 우리를 쳐다 보느냐?” 그것은 만고의 명언이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간인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문화가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더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화적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발달되어가는 문화의 세력을 우리가 뚝 막아 들어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굉장한 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문화를 바로 이끄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지었다 하면 교회이고 헌금이 수백만원씩 나오는 교회도 수도룩 하다. 이 교회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자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큰 일이다. 큰 힘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이 큰 교회에는 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계속 큰 교회로 부흥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무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이 대대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게 된다. 교회는 한없이 교만해지고 교인들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큰 일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문화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애국하는 가장 큰 켄경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문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인 것이다. (*)

'78 계절 학교 총 결산

고 제 원 집사

(월간총현 간사)

- ☐...지리하던 여름은 갔다. 더불어 분주했던 여름행사도 마쳤다. 결실의 계절, 열매를 바...
☐...라보며 노력의 대가를 입으로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여름계절학교의 열매를 보...
☐...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자. 이번에는 실제 열매를 열리게 한 장본인들의 노...
☐...력과 고충을 알아 보기 위해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2부 주...
☐...일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78학년도 여름계절학교의...
☐...총결산을 해 본다. ...

1. 각부 계절학교(여름) 실시결과 개요

말씀과 생활의 조화, 경건교육의 강화, 강화훈련의 필요라는 필연성을 위해 금년도 각부 주일학교에서는 계절학교를 모두 마친 지 오래다. 각부마다 성격에 맞게끔 그리고 각부 금년 표어에 맞고 총현교회 주일학교 전체표어에 맞게끔 계획하고 실시하고 또 평가를 하였다.

영아부를 비롯하여 초등부까지 1부 주일학교는 본 교회당에서 초등부 5학년 어린이를 포함하여 중등부부터 노년부까지 2부 주일학교는 성산 총현기도원에서 각각 순서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았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교육을 위한 투자는 조금도 아까울 수 없으나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는가? 스스로를 진단해 볼지도 하다.

강사들의 양상은 1부 주일학교에서는 대개 대개강사가 담당하였으며 2부 주일학교에서는 거의 대개강사를 초빙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다. 예산 역시 참가인원에 비례하여 집행된 점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의 일관성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어느 정도 순응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계절학교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참가인원은 영아부·유치부·중등부·청년부·장년부·노년부를 제외하고는 예산인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전체 참가인원은 예산인원보다 초과하여 총2,997명이 훈련을 받았다. 예산 역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어린이 세신자부와 초등부 어린이 수양회만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초과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만원의 초과를 가져왔다.

2. 계절학교에 대한 각부별 전체평가

말씀충만, 기도충만, 은혜충만, 총만의 역사가 12개

부 주일학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문제는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렸느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 부(部)마다 특징이 있고 성격이 달라 방법론들이 다르다곤 치더라도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천국일꾼을 키우자」에서 진경 천국일꾼 육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총만의 역사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점검해 보았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계획한 내용이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었느냐와 피교육자들의 자세 내지는 교육효과가 있었느냐를 평가회라는 모임의 결과에서 부분로 나타났다. 뚜렷한 평가원칙에 입각한 내용은 아니겠으나 자연스럽게 허물없이 나눈 이야기에서 알찬 내용의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특히 각 부별 계절학교에서 잘 되었던 점과 금년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연관성있게 정리하였으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79년도 계절학교에 반영할 점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건의사항은 현시점에서 아쉬웠던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 내지는 만족을 위해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해 간절하게 건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진행상의 문제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주제와 말씀에 대한 건설적인 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을 부별 평가서를 통하여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목적과 표어에 적합한가를 평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계획과 집행이 분리된 상황에서 평가를 한 느낌을 준다. 진행상의 잘잘못만 지적한 것을 보면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79년에 반영할 점에 대한 내용도 교육적인 면에서의 제안보다는 부분적인 면에서 금년의 문제점을 단순히 보완하는 정도였으므로 내년에 다른 주제와 강사가 선정된다면 또 다시 문제가 될 내용들이었다.

건의사항으로는 대부분 예산의 현실화를 요청했으며 어느 부에서는 기도원 전기사정이 좋지 못하여 발전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식당의 봉사대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

78년도 주일학교 각부 계절학교(여름) 실시경과 개요

부별	명 칭	목 적	기 간	장소	주 제	주제 찬송	주제성구	강 사		참 가 인 원 (명)						경 비	
								대 외	대 내	학생	교사	기타	계	예상인원		예 산	결 산
새신자(어)	제 25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들을 진도하여 신자로 육성	7.24~27(4)	중원교회당	즐거움과 교회생활	532	삼전 5.16~18		김종택 목사 이양우 전도사	75	18	—	93	140		90,000	73,400
영아부	제 7회 영아부 계절학교	복음을 심고 가꾼다	8.15~16(2)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 20:26~28	김득룡 목사		181	31	144	356	240		135,000	159,484
유치부	제 25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교회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체험케 함에 있다	8.7~10(4)	"	즐거움과 교회생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시 122:1		정연희 전도사 장선애 신	236	50	77	363	300		265,000	358,435
유년부	제 25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집중적인 신앙훈련	7.31~8.3(4)	"	"	532	요 4:23-24		김영희 전도사 김양래 신	310	66	—	376	390		334,000	404,950
초등부	제 25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신앙인의 질적 향상을 위함	7.24~27(4)	"	"	532	딤후 3:15		김종택 목사	282	47	—	329	390		313,000	317,990
초등부(5)	제 6회 여름 어린이 수양회	모범적인 신앙인격자를 키우기 위함	8.14~17(4)	중원교회당	성령 충만하여 사는 어린이가 되자	210	행 2:17-21		김석원 전도사	97	30	—	127	170		477,000	461,680
중등부	제 16회 중등부 하계 수양회	신앙의 생활화	7.25~29(5)	"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	91	사 33:6		윤형철 전도사	281	30	15	326	290		1,026,000	1,185,490
고등부	제 16회 고등부 하계 수양회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감을 깨닫게 한다	8.7~11(5)	"	내 몸은 예수님의 혼을 거저 노라	249	갈 6:17	황장욱 목사		200	27	1	228	260		925,000	964,480
대학부	제 9회 대학부 하계 수양회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헌신케 하는데 있다	8.1~5(5)	"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369	마 20:20-23	이동원 목사		113	11	—	124	130		592,000	654,088
청년부	제 8회 청년부 하계 수양회	삼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착수의 신앙자세를 재정립한다	7.17~19(3)	"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299	요 17:17	김진택 목사		160	3	—	163	155		382,000	549,410
장년부	제 1회 장년부 하계 수양회	신앙훈련	7.31~8.1(2)	"	바르알고바르민자	253	딤후 3:14-15	임종만 목사		334	30	—	364	230		338,000	779,180
노년부	제 3회 노년부 하계 수양회	영적수양과 노년기의 생활교육	8.21~22(2)	"	우리 날제 수함을 알게 하소서	256	시 90:12		김재창 목사 엄필성 집사	126	21	13	160	130		323,000	412,930
합계										2,384	363	250	2,997	2,825		5,200,000	6,321,517

(자료: 교육위 행사분과)

78년도 계절학교(여름)에 대한 각부별 전체평가요약

새신자부(어)

- (1) 잘되었던 점
 - ① 글짓기, 그리기 대회
 - ② 학생들의 명찰패용
 - ③ 성경공부 시간이 많았다.
- (2) 문 제 점
 - ① 준비과정 미비
 - ② 아침 예배시작시간이 늦었음
 - ③ 날씨가 무더워 학생들의 동원이 어려웠음
 - ④ 교사준비기초회에 교사참석을 저조
-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아침예배 시간은 08:50 또는 09:00에 시작할 것
 - ② 운영안에 찬송을 삽입할 것
 - ③ 저녁 출석점수도 오전과 동일하게 채점할 것
 - ④ 특강시간을 좀더 다양성있게 할 것
- (4) 건의사항
 - ① 어린이 새신자부 특수사정을 감안, 계절학교에는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해줄 것
 - ② 79년부터는 완전 독립하여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설교내용의 난해성, 어린이들의 위축감 등의 문제가 있음).

영 아 부

- (1) 잘되었던 점
 - ① 공휴일(8/15)에 실시하므로 아파도 참석할 수 있었다.
 - ② 학부모 특강이 효과적이었다.
 - ③ 2부순서에 어린이들을 반별로 모여앉혀 진행함이 좋았다.
 - ④ 간식시간을 늘리므로(1일 2회)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많았다.
 - ⑤ 풍선을 많이 달아놓아 풍요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 (2) 문 제 점
 - ① 첫째날 자리정돈이 잘 안됨
 - ② 피아노 상태가 좋지 않아 2부 진행에 어려움
-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기간을 급년처럼 8·15 공휴일을 택하여 14, 15일로 할 것
 - ② 간식을 1일 2회로 할 것
 - ③ 만든 작품은 끝난 후에 돌려줄 것

유 치 부

- (1) 잘되었던 점
 - ① 시기적으로 좋았다(8.7~10)
 - ② 교과과정이 다양했다.
 - ③ 점심을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하여 친교가 잘 이루어졌다.
- (2) 문 제 점
 - ① 예배시 분위기조성이 미흡
 - ② 교사 어린이 명찰을 구분했으면
 - ③ 시간 엄수 불철저
- (3) 79년에 반영할 점

유 년 부

- (1) 본반공부시간을 좀더 늘릴 것
- (4) 건의사항
 - ① 보조교사 식대 지원 요망
 - ② 장소사용시 타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사전조치 요망.

유 년 부

- (1) 잘되었던 점
 - ①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오후 활동에 열정이 잘되었음
 - ② 전체 교안(전후설교 본반공부)
 - ③ 모든 각반 합반 없이 진행되었음
- (2) 문 제 점
 - ① 학년과장이 불참하여 각 학년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 ② 슬라이드 영화선정이 좋지 못했다
-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성경퀴즈대회 조직이 미흡한 것 같았다. 모든 특활을 충분히 준비하여 맞을 것 (강사 영화 등 선정)
- (4) 건의사항
 - ① 79년도 하기학교에는 3일정도 전체학년이 기도원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신앙생활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초 등 부

- (1) 잘되었던 점
 - ① 초청유일들이 만화로 되어 좋았다
 - ② 특강 공산전학교회문제점과상황이 좋았다
 - ③ 교과교안이 별도 작성되었다.
- (2) 문 제 점
 - ① 학생명찰이 없었음
 - ② 진행시간표를 크게 만들어 부착했으면
 - ③ 찬송공부시 악보나 차드가 없었다
-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주제와관련된 설교, 찬송, 기타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임
- (4) 건의사항
 - ① 환기 장치 설치 요망
 - ② 본당에 저녁예배시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초 등 부(5)

- (1) 잘되었던 점
 - ① 같이 생활하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행편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 ② 장소 숙소가 잘되어 있어서 질서유지가 용이하였다.
 - ③ 모탁물 예배를 통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의 기회를 갖게 했다.
- (2) 문 제 점
 - ① 교사들의 참여가 여의치 못하여 편성상 애로를 느낌
 - ② 다른 부서와 달리 년 2회 여름 성경학교와 하기수양회로 말미암아 교사들의 봉사참여에 애

로가 있음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기도원에 운동기구들 공동으로 구입 보관 사용 하였으면
- ② 순서위주로 짜지 말고 무엇이든 하나를 마음에 심을 수 있게 여유있는 시간을 줬으면

(4) 건의사항

- ① 자체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은 교육위원회에 바치고 타서 쓰는 형식을 취했으면 한다.
- ② 기도원에 수영장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 등 부

(1) 잘되었던 점

- ① 학생들과 교사들간의 일체감이 조성되어 신앙상 문제점이 파악됨

(2) 문 제 점

- ① 철저한 교사훈련의 부족
- ② 학생 훈련의 부족
- ③ 교재·간행물이 신속히 처리가 안됨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교재 간행물 처리를 위한 특별계획의 수립
- ② 교회적 규모에서의 교사훈련 계획수립
- ③ 준비 철저(강사교섭 등)

(4) 건의사항

- ① 중등부 고등부 교사 합동훈련 지침 요망.

고 등 부

(1) 잘되었던 점

- ① 공식적인 모든 대회(성가 성극)를 프로그램에 제외시킴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안에서의 친교를 조별로 갖도록 한 결과 친교면에서 일대 발전이 있었다. 부흥회중심의 수양회보다는 생활중심의 수양회로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크게 은혜 받았다

(2) 문 제 점

- ① 강사와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어서 곤란하였음. 강사까지 참여한 치밀한 진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행사·부흥회 중심보다는 전체생활에서 은혜받고 변화를 경험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각종 행사의 제외, 반별경쟁의식 제거, 실장훈련의 강화등이 요망된다

(4) 건의사항

- ① 개인시간(경건의시간)을 충분히 주어 일상생활로 돌아온 이후에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새벽기도회 취침전 각 1시간 정도)

대 학 부

(1) 잘되었던 점

- ① 식사 때마다 조별로 성구암송 및 인원 파악
- ② 새벽기도후 무덤가에서 개인기도 및 명상의시간
- ③ 기도원 주변 마을과 광주에 노방전도 나간것이 효과적이었다

(2) 문 제 점

- ① 준비기간 중 참석권유를 위해 가정통신문 발송이 요망됨

- ② 성가부와 합동으로 가지므로 저녁부흥회의 경우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각기 다른 부서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수양회를 갖는 것은 무리다
- ② 제철학교(수양회)기간에는 식사메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망된다

(4) 건의사항

- ①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청 년 부

(1) 잘되었던 점

- ①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었다.
- ② 강사 선정이 좋았다.
- ③ 회원들의 성경읽는 것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문 제 점

- ① 기간이 너무 짧음에 비하여 계획은 너무 많아서 약간 무리가 있었다.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기간을 3박 4일 정도로 늘렸으면 한다(출퇴근하는 인원이 있더라도 기도원버스를 이용케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임)

(4) 건의사항

- ① 예산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장 년 부

(1) 잘되었던 점

- ① 장소 선정
- ② 교통 편리
- ③ 진행 및 강의내용

(2) 문 제 점

- ① 배차가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 ② 숙소 배정문제에 혼란이 많았다.
- ③ 무리한 강의진행으로 휴식이 없었다.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기간은 월말과 월초를 피할것
- ② 기간은 2박 3일로 늘렸으면 좋겠다

(4) 건의사항

- ① 전기사정이 좋지 못하니 발전기시설을 해놓았으면 좋겠다.

노 년 부

(1) 잘되었던 점

- ① 예상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하여 좋았다.
- ② 교사 21명 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 ③ 식사가 좋았다.

(2) 문 제 점

- ① 휴식시간이 부족하였다
- ② 전체시간이 짧았다

(3) 79년에 반영할 점

- ① 예산의 대폭 증액(금년에도 여전도회와 개인찬조금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울 뻔하였음)
- ② 기간을 2박 3일로 늘렸으면 좋겠다.

(자료 : 교육원 행사분과)

3. 각부 실무진들이 본 계절학교

각부 주일학교에서 금년 계절학교의 실무를 맡은 부장·지도교역자·생활지도처장들의 평가회가 9월 25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유년부실에서 있었는데 18명의 각부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3시간동안 알찬 평가회를 가졌다.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들이 있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폭넓은 계절학교의 인식과 방법론 더 나아가 활발한 연구 등이 토론의 주가 되었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과연 실현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감사드리며 여기 그 평가 내용을 요약해 본다.

□ 평가 내용 요약

가. 주제선정 ; 강사를 고려치 말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교육준비 ;

① 교사훈련—교사들이 수도노회연합 강습회의 참석율이 저조하였다.

(이유) ㉠ 사전 강력한 참석권유 부족하다.

㉡ 등록금은 해당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하다.

㉢ 중·고·대학생부 이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빈약하다.

② 강사선정—사전에 교육위에서 각부에 맞는 강사들을 추천하여 줄이 소망스럽다.

③ 특별활동—㉠ 전통적인 방법에 집착하여 계절학교의 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

㉡ 사전에 계절학교 계획서에 대한 교육위의 검토가 필요하다.

※ 여름성경학교의 역사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최소 2개월 전에 각 주일학교 임원을 소집, 계획을 수립함이 좋겠다. 또한 계절학교 연구팀을 조직 운영함이 좋겠다.

다. 진행과정 ; 총화 교육부의 교재 등 자료가 빈약하므로 주제전달이 약하다.

라. 장소 ; 중부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총회기도원 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

마. 생활지도 ; 수양회, 계절학교기간중 생활에의 변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바. 캠프 파이어 ;

① 기간중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므로 유익하다.

② 교육적인 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③ 그러나 피를 종이에 적어 불에 태우게 함은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부속적이 못되기 쉽다.

사. 확인 ; ① 계절학교 후 확인, 반복, 연장등의 방법으로 후반기교육과 연결시키는 효과적이다.

② 계절학교후 설문서나 가정통신으로 효과를 측정함이 좋을 것이다.

아. 예산 ; 항목별단가를 부별로 더욱 차이를 두어 현실화함이 좋겠다.

(자료 : 교육위 행사분과)

4. 피교육자들이 본 각부 계절학교

평가는 객체가 하기보다는 주체가 되는 피교육자들의 평가가 정확하리라 본다. 어떻게 교육시켰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무엇을 배워 생활에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이다. 교육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방법도 다양한 것이다. 그러나 피교육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하며 좋았다. 나뻐다의 두가지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교육자의 교육이 어느 정도 피교육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내용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가치관단이 가능한 중등부 이상(II부 주일학교)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금년 계절학교 주제가 각부의 금년도 표어와 연관성이 있었느냐를 조사하였더니 공히 모든 부(部)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으며 고등부와 대학부에서 관련이 없는 것같다가 1할정도 되었다. 이 사실로 보건대 대체적으로 주제는 각부의 금년 표어에 입각한 설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준비과정에서 광고에 대해서 피교육자들은 대개 충분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새로운 방법의 광고가 필요하다고 답한 부서가 대학부·고등부·장년부였으며 그 수도 반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광고의 미흡한 점이 노출되었다. 광고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학적 심리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다.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계절학교의 성패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지를 신중을 기해 답했으리라 보는데, 고등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잘 되었다고 답했다 고등부의 경우도 잘 되었다가 반정도이며 그저 그렇다가 40%정도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강사선정에 있어서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교재와 교사면에 대해서는 대개 충분했다고 답했으나 대학부에서는 충분했다와 부족했다가 교재와 교사 둘 다 공히 반씩이 없다. 청년부에서도 교재의 부족을 느낀 점으로 보아 대학부와 청년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재개발이 시급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학부의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교사의 숫적 부족을 느낀 것으로 판단하고 싶다.

계절학교 행사에 대한 설문에는 행사로 인해 말씀 듣는 데 지장을 준다고 답한 사람들이 고등부·대학부·청년부 모두 20%정도이었고 행사가 적다 생각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부 공히 30%정도였고 많다는 사람들도 같은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행사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말씀 듣는 데 지장을 준다는 사람들과 행사를 없애고 격당히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반이상 되는 점으로 보아 너무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행사보다는 오히려 특강과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장년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사실이다.

강의와 메시지가 주제전달을 어느 정도 하였느냐에 대한 설문에는 고등부와 장년부만이 미숙했다 하고 답한 사람들이 20%정도 있었고, 다른 부(部)는 잘 되었다고 답했다. 이것은 강사선정과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고등부와 장년부에서 강사에 대해 만족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전달이 안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질문에는 반이상이 피교육자들의 자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강사 때문에'라는 말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행사가 주제와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느냐의 질문에는 각부가 모두 연관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주제와 행사 결정면에서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좋았다고 답했는데 대학부의 경우에는 성가부와 같이 실시하여서 그랬는지 몇 사람이 좋지 못하다고 답했다.

생활지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등부를 제외하고는 잘 되었다와 잘 되지 않았다가 반씩 나타났으며 고등부는 잘 되었다가 지배적이었다. 이 사실로 보아 생활지도교육의 부족이 노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과 생활의 조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교육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계절학교 기간중 강화훈련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반아들이겠느냐의 질문에는 거의 모든 부가 신앙인의 생활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순응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다. 이것은 실제 강화훈련을 지키지 않음으로 신앙생활의 자극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과 너무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에 순종할 자세들이 되어 있다는 점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훈련이 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바 세심한 계획으로 정신적 교육 및 신앙 인격형성교육을 단계적으로 꼭 실시하여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질문에는 역시 고등부를 제외하고는 잘 되었다와 그저 그렇다가 반씩으로 나타났으며 고등부만 유독 잘되었다가 80% 그저 그렇다가 20%로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생활지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활교육 치중을 하다 보면 교제에 대해 강조되는 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고등부의 경우는 말씀 중심의 교육 외에 생활중심의 교육에 치중을 하였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 줄 안다. 타부는 말씀·생활 둘 다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잘 조화되었다기보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좋았던 시간들을 제시한다면의 질문에는 각부 공히 대화의 시간, 교제기도시간 찬양간을 들었다. 역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순수하고 진실하다. 기도·찬양 이것이 교제의 방법이며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비장의 무기이기도 하다.

캠프 파이어에 대해서는 고등부와 대학부는 꼭 있어야겠다가 지배적이나 청년부와 장년부의 경우는 성경적이 아니므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가 지배적이었다. 이 사실로 보아 유독 젊은층만이 캠프 파이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 노출되었으므로 의미를 찾아 필연성은 연구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

식사에 대해서는 부식이 빈약했다는 대답이 약간 있었으나 그런 대로 만족했다고 답한다.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고등부는 캠프 파이어, 교제기도시간, 찬양시간 순으로 대답했으며 대학부의 경우는 저녁배식시간, 조별기도시간, 특강시간순으로 청년부는 강의시간, 말씀시간, 찬양시간 순이며 장년부는 성경공부시간, 강의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고등부의 경우는 생활 중심의 진행이며 대학부·청년부·장년부는 말씀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금년 계절학교에서 시정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개인 자유시간이 부족하니 개인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문제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이다. 조별로 친구와 선후배와 교사와 강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또한 규칙적인 시간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며 더불어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아직 계절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과 격렬히 시간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로 인하여 누구누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귀부의 금년 계절학교의 총평을 하신다면?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부의 모든 응답자들이 전부 좋았다. 은혜스러웠다 라고 평했다. 좋은 평인 듯하다.

금년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총회기도원에서 계절학교를 실시했기에 더욱 은혜스러웠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이다. 각부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은혜의 결과인 열매들이 영글어 거둘 때만 기다리고 있다. 더욱 알차게 채우면서…….

금년 계절학교는 교육자 및 피교육자들이 모두 만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나은 계절학교 운영을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의 미흡했던 질서확립과 친교시간의 부족과 대화의 시간 장려에 집중 연구를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더 많이 맺게 되기를 믿고 감사를 드린다.

(*)

감사! 활렐루야! 아멘!

한 정 배

(유년부 교사·청년회원)

이번에 전도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산간벽지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다녀오라고 하여 일곱 교회를 여행하던 중 미흡하지만 제가 느꼈던 점들을 일기로 써 보았다.

9월 5일(화)

청량리에 도착하니 아침 8시 20분이었다. 시계탑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란 표시를 보고 서로 알아보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이쪽지에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크게 쓰고 그 옆에 충현교회라 조그마하게 쓴 후에 철사를 주워다가 왼쪽 가슴에 달았다. 약 20분을 기다리니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지고 성경책을 건 성광교회 김전도사님과 다른 한 분을 만났다. 강원도 여량까지 가는 완행 열차표를 가지고 셋이서 마주 앉아 자리를 잡았다. 생각지도 않았던 등산복 여행이 된 것이다. 가만히 묵상하며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기이 이런 갑작스런 여행을 하게 됩니까?” 하며 기도를 드렸다.

옆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께 어디까지 가시는지 물은 후 복음을 전했다. 과거에는 열심있는 신자였지만 지금은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고 주소를 적은 뒤 양평에서 그분은 내려갔다.

열차가 원주에 도착하니 여량교회 강도사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주의 일을 하면 이렇게 극진한 환영을 받는다. 강도사님과 넷이서 강원도 산간벽지에 있는 약한 교회들의 자립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 나에게 인상깊은 것은 교역자를 보조하기 위해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보다 교인들의 소득 증대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몇 년간 계속해서 열마간의 생활비를 보내주면 그걸로 인해 교인들이 나태해지며 보조가 끊어지면 교역자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범된 신자들 중 일정한 비용을 보조해서 교인들의 소득을 증대해서 심일조를 의무적으로 바치게 하면 교회 일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몇 년 안에 자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예를 들면 돼지를 몇 마리에 사준 뒤에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중 한마리는 교회에 반납해서 그 새끼 돼지를 다른 교인들이 기르도록 해서 전 교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약 8시간의 열차를 타고 목적지 여량역에 하차했다. 이곳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다. 앞에도 뒤에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네 앞은 맑은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마중나오신 집사님들의 안내를 받

으며 여량교회에 도착했다. 약 30명 되는 건평에 아담하게 세워진 교회였다. 배낭을 놓자마자 강물을 나룻배로 건너서 유천리 마을로 답사하러 갔다. 그곳은 몇 년 전 전도원이 있었는데 폐허가 되어 버렸다. 가구수가 약 150 가구가 되고 탄광지대이므로 앞으로 탄광이 확대될 것이므로 반드시 교회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없으므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복음화가 되는 길이며 민족복음화는 마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도집회도 중요하고 거국적인 전도대회도 좋지만 동지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약한 교회를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9월 6일(수)

새벽 차임벨 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여량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렸다. 아침을 대접받고 작별인사를 드린 뒤 목적지인 고양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량교회에서 6km를 올라가면서 장보러 오는 주민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외쳤다. 맑은 개울물을 따라 올라가니 간간히 외딴 집들이 있는데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어 어렵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고양리에 도착하니 가구수가 약 140가구수가 되고 골짜기를 따라 집들이 놓여 있다. 국민학교가 있는데 선생은 두 분 학생들은 70여명 운동장에서 율동을 하고 있다가 우리 일행이 가니 전부 우리를 쳐다본다. 이 외딴 곳에 장로교 신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선양교회란 명칭으로 교회가 설립된다. 농협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이 비록 초라하게 낡았지만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간 30만원으로 건물값만 곧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교역자도 며칠 사이에 오시기로 되어 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뻐다. 이런 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다니 이곳 주민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리라 생각되니 한없이 기뻐다. 그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이곳은 장로교 신자가 없으므로 이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교역자의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행선지를 향해 높은 산을 넘어 가야 한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른다. 숨도 가쁘고 힘이 들지만

간혹 시원한 골짜기 바람이 더위를 식게 한다. 헉헉거리며 “할렐루야! 여호와여!”란 외침에 산을 넘어 온다. 머리를 따먹고 시원한 골짜기 물을 마신 중에 가까스로 목적지인 봉정리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버스도 다니지 않는다.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농사를 짓는 집단 마을이다. 여랑면으로 나가야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사면이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레가 다닐 만한 길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지게로 지고 오솔길을 4km를 걸어와야 한다. 가꾸수가 약 70가꾸수가 되는데 어느 정도 부유한 농민들인 것 같다.

이런 곳에 유일한 장로교가 서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 전도사님을 찾아 보니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때가 마침 점심때라서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저녁때쯤 올 줄 알고 식사준비를 안했던 모양이다. 있는 그대로 차려 주는데 서울에서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러나 더위에 시달려 밥맛이 없었지만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한그릇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감사하게 생각되며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소원했다. 한달 사배금은 일만 오천원을 받고 있고 다른 외부에서 약간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 행선지 때문에 오늘 가야 한다고 하니 뿔뿔 피지면서 수요일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가시라고 통사정하다시피 만류하셔서 할수없이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어린이(유·초등부) 예배시간인데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나를 놀라게 했다. 마치 우리의 후집회때에 열심히 박수치며 은혜를 갈급하듯이 말이다. 대표기도시간에는 “주여! 아멘! 믿읍니다!”라는 소리에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울면서 부르짖는 모습은 영락없이 어른들과 똑같았다. 이런 어린이들도 있구나 하는 기이함이 있었다.

저녁예배를 마치고 몇분의 제직분들이 옥수수과 머루를 가져와 먹으라고 했다. 아침에는 닭까지 잡아 배접해주었다. 마음속으로 피로운 대접이지만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실 것을 기도하면서 아쉬운 작별인사와 함께 다음 행선지를 향해 출발했다.

9월 7일(목)

오늘은 임제면 교양리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짜기 맑은 개울물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전진이다. 2시간을 걸어 올라가니 목적이인 교양교회가 있었다. 옥수수와 콩·감자 재배가 주산물인 그곳은 삼베옷을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산재해 있는 가꾸수가 약 100호가 되는데 생활필수품은 산을 넘어서 등에 지고 가져와야 하는 곳이다. 초가집의 교회는 두방을 터놓은 곳에 십자가 마크를 수놓은 보에 책상을 덮고 있는 것이 강대상이었다.

안에 들어가니 빈집 같은 느낌이다. 한참 있으니 교인들이 한분 두분 모이기 시작했다. 전도사님을 물으니 가신 지 20일이 되며 편지가 왔는데 못 온다는 사연이었다고 전했다. 가슴이 찡찡 내려앉은 것 같았다.

교회 안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 다음 통성기도를 했는데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우리 일행은 어서 속히 주의 사자님을 보내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 십사고 기도드렸다. 강원 노회에서 가장 오지(奧地)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주의 사자님이 없으니 열명 가량되는 생명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열려가 되었다.

오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가장 크고 부흥이 된 반천교회를 찾았다. 사택에 들어서니 벽에 걸려있는 농어촌지도자훈련 기념패를 보니 반가웠다. 200가꾸수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십리·이십리 먼 거리에 서도 플레쉬를 들고 밤 예배 드리러 온다. 교인은 장년 70명 유년 50명인데 전도사님은 이곳이 교향이 되신다. 교향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되겠다. 반천교회에서 저녁대접을 받고 소란교회를 향해 갈려고 하니 한사코 만류를 하신다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발걸음을 나서니 고개까지 배웅, 섭식함을 급지 못해 하시며 다스린 손을 고옥 쥐어 주신다.

지금부터는 밤길을 걷는 것이다. 넓은 강물을 건너야 하는데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다. 비가 온 뒤라시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조심조심 한 걸음씩 딛고 건너는데 가장 물결이 사나운 곳에 외나무다리가 흔들흔들 움직인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물결을 보니 현기증이 생긴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가까스로 건넜다. 밤길을 약 2시간 동안 시냇물을 따라 신작로길을 걸어서 소란교회에 도착했다.

15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 교인은 장년 10명 주일학생 20명 미혼인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하시고 그의 어머니님이 보살피고 계셨다. 이 어머니를 보니 풍기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나의 어머니 생각이 났던 생각나게 한다. 교회 부흥을 위해 밤낮 간구하시는 나의 어머니를 보아왔기 때문에 전도사님 어머니의 심정을 백분 이해할 수 있겠다.

저녁을 먹고 왔다고 해도 자꾸만 먹을 것을 들고 오시니 마음이 괴롭기만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다.

9월 8일(금)

버스를 타고 송제리에서 정선까지 오던 중 버스안에 서 뒷좌에 차득통 목사님을 뵈었다. 차득통목사는 영월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산간벽지를 찾아 다니시며 많은 합동측 교회를 개척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이분의 노고로 인해 산간벽지에도 합동측 교회가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화원교회에 가보기를 원하셔서 정선군 동면쪽으로 갈려던 발걸음을 화원교회로 돌렸다.

영월까지 열차를 타고 와서 직행버스로 석왕까지 오니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신작로길을 2km 걸어 들어와서 교회를 물으니 단경대에 있는데 산너머에 있다고 했다 어두운 밤길을 플레쉬를 비쳐가며 구불구불 길을 따라 걸었다. 단광지대라서 큰 신작로길이었지만 초행길이라서 힘이 무척 들었다. 어떻게 산을 넘어 불빛이 보이는 마을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1/2002년 2월

심령대부흥회

오 태 용

바로 아래 마을 불빛은 보이는데 길이 도중에서 끊어졌다. 이리 저리 방황하다가 다시 오던 길을 올라가서 주민들에게 물어서 가까스로 교회에 도착했다. 어둠 밤에 어렴풋이 보이는 종각의 십자가는 몇시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저절로 한테루야가 입에서 나왔다.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되다니 기쁘고 감사하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주의 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전도사님은 서울에 공부 때문에 가서 안 계시고 사모님만 만날 수 있었다.

이제 갓 결혼한 22살의 젊은 사모이다. 그런데 너무나 순하게 보이고 꼭 천사와 같은 느낌이 든다. 티없이 맑고 어린애 같은 신앙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어떤 인간의 지식과 의지를 결기한 신앙인이 아닌 어린애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이었다 가 날뜨듯이 말하는 목소리며 똑바로 곱게 얹어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신앙간증을 하는 태도를 잊을 수 없겠다.

교회는 25평정도이며 시멘트로 건축한 교회였다. 교인은 장년이 10명 이내이고 주일학생이 30명 되었다. 한달 헌금의 집계는 만오천원 전도사님 서울로 학교 다닐때 교통비밖에 안되고 식량은 이곳 집사님이 탄광촌에 나오는 정부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일행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나는 너무 호감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곳에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똑같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며 찢어질듯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던 말인가? 이분들도 똑같은 나의 형제 자매요 주의 사자들이 아닌가.

나는 먼 창공을 향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주의 사자님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서 감사하나이다."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쪽은 터질 듯이 부유하여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데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 않은가 다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들이 아닌가. 만일 부유한 자식들이 가난한 자식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좋아서 지냈다면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모님이 너무 생활에 곤란을 느껴 어젯밤은 눈물로써 기도드렸다 한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 큰 교회에서 가난한 시골교회에 보조해 준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길이 없겠는지 눈물로써 기도한 후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밤에 해했던 길을 바라보니 바로 거길에 어두워서 길을 방황했던 걸 생각하니 우습기만 하다. 화원교회에 사랑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니 후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다.

복약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때 아닌 인파를 가끔 목격하게 된다. 한번은 산 쪽에서 한 무리가 쏟아져 나오길래 유심히 훑어보니 겨개가 여인네들인데 허름한 태무세의 중노인들, 아주머니들, 처녀들이었다. 건강한 지식층이랄 수는 없고 매일의 생활에 찌들린 부녀자들이 무슨 산상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한보따리씩 받아 내려오는 모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대개 몇번씩은 「심령대부흥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흥회 때는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부흥강사들의 특유한 제스처, 목소리, 혼내 같은 것뿐 그들의 깊이있는 메시지는 기억나는게 별로 없는 수가 허다하다. 이 부흥사에게선 이런 진리를 깨달았고 저 목사에게선 저런 도리를 깨쳤지 하는 알맹이 있는 부흥회 기억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메시지 -심령대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하였으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요근래 사이비 부흥사 문제로 시비가 많은 것 같다. 개관하면 「심령대부흥회」라 해서 융하다는 부흥강사를 초빙해다가 법석을 면 뒤 헌금을 우려내어 교회 재정이나 사복을 채우기도 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상설 부흥회를 열어 묘기적 방법으로 신도들의 맘을 훑어간다고도 한다. 무슨 「술」을 써서 기적과 혼동시켜 재미를 톡톡히 보는 부흥사도 있단다.

이렇듯 부흥강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전국 심지어 해외 교포들까지 찾아다니며 부흥회를 열어 (교계 신문을 보라) 심령을 부흥시키는데 왜 이나라 기독교인들의 정신상태는 늘 제자리걸음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노회가 분열하고 교단이 쪼개지는가? 그리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쁜 것 하더라」는 편견을 왜 받아야 하는가? 죽었던 또 잠자던 심령이 정말 문자 그대로 부흥(revival)되었다고 하면 교계와 사회의 일각이 이토록 저절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곰곰히 생각하면 사이비 부흥사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산물인 것 같다. 교회가 신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양육시켰다면 제아무리 수단 좋은 부흥강사가 「잔치」를 벌여놓고 나팔 불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손님 없는 장사 집어치울 게 아니겠는가.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있게 가르치고(사경회), 신자들을 도한 스스로 공부하는 자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쌓는다면 신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영터러 「심령대부흥회」는 자연히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심령대부흥회」-그것은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닐지!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0:14-15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참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에는 물론 예배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나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첫부분도 감사로 시작하여야 하고 하나님 경배의 내용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기도·헌금 이 모든 것이 역지로그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과 악속을 지키며 경배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그리고 세례교인이 하나님께,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악속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악속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악속을 갚는다는 말은 실천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정에 빠진 호랑이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잡아먹겠다는 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세와 사랑을 원수로 갚거나 공적 악속과 사적 악속을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기분에 끌리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는 세속에 눌리어서 서원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훌륭한 인격자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속을 지킬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세째로 환난날에 주님과 의논할 줄 아는 자.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사가 됩니다. 어려울 때에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은 부모를 모독하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 생활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가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사랑으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홍해에서,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에서, 감옥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줄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입니다.

시 51:1-6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고 용서를 구함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다윗이 용서를 구할 때 그는 세 가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는 도말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죄수에게 선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채용증서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말갈게 씻기소서 입니다. 이는 깨끗하게 세탁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세째는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는 죄의 근성을 없이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다윗은 죄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세 가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죄과라는 말을 했을 때 허물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둘째로 그는 죄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말합니다. 세째로 죄라고 하였을 때, 죄라는 것은 정로를 떠나서 어긋나는 길로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후 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는 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을 안다」(3절)라고 하였을 때, 그는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 죄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는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늘 내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병든 자가 아픈 줄 모르면 그것은 문 제입니다. 신경이 마비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런 불쌍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교회에 손해를 내고도 뻔뻔스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세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표준한 죄책입니다. 자기는 왕인고로 충고하는 자에게 거절할 수도 있으나 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종의 말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지자 나단보다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째는 하나님의 유죄판결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실 때에 “을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태도였습니다.

다섯째 자기는 근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5절). 그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죄인 유전죄가 있습니다.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고는 김창민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9월 중 결혼)

- 변경자양/한경옥 집사 2녀, 20일 세종호텔
- 김제건군과 박승애양/이성숙 집사 아들 26일 중현교회당.
- 임병진군과 정명숙양/27일 중현교회당.
- 이충복군과 이춘례양/임화순 전사 아들 28일 중현교회당.
- 민경천군과 김명희양/변동구역 30일 Y.W.C.A. 4층.

위로 드립니다(9월 중 별세)

- 이순달집사/청량리구역 20일 별세
- 정의숙전사/논현구역 27일 별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새생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전 건축 준비에 난관의 문제였던 성전부지가 다 풀리어 머지 않아 설계도의 완성과 함께 가급적이면 금년에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 해외복음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 선교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 분의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북녘 땅 이북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 번씩 기도도 후원합니다.

해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 노우트 33

임종과 장례를 돕는 길 (4)

백성 통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발인에배시간 전에 산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지고 갈 물품들을 미리 차에 실어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1. 발인에배 장소 준비

방안이나 들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 운구하여 안치할 수 있도록 고임돌이나 상자 같은 것을 준비하고 백지로 둘러서 보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좌석배치와 안내

집례자는 관 상부에, 유가족들은 하부에 위치하여 서게 된다. 이때 상배자는 의자에 앉도록 의자 하나를 준비하도록 한다. 구역장은 친히 조객들을 안내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안내하게 하고 일체 잡음이 들리지 않게 주의를 잘 살려야 한다.

3. 발인 절차

주례자가 사전을 든 사람과 함께 앞서고 다음 관이 따르고 그 뒤에 유가족들과 조객들 순으로 영구차에까지 이르게 된다. 차 열에서 문상을 받는 동안 구역장이나 그밖의 직분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조동과 명동 등 교회에서 가져온 물품을 간수하도록 해야 한다.

4. 하관 절차

산에 가서 자가 정거한 지점과 장지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을 때는 발인 때와 같은 행렬을 지어 장지까지 가게 된다.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은 산에 가서 말조심할 것인데 장지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다.

약간 물이 나오는 것보다 물이 많든지 물이 날 것 같든지 방위가 좋지 못하다는 등 유가족들로 하여금 마음에 거뭇치게 만드는 말을 일체 금해야 한다.

5. 하관 예배

산에 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해야 한다. 이 예배는 흠으로 된 몸 흠으로 둘러보내고 산 사람들끼리 집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유가족들의 마음은 한층 더 울적해진다. 그러므로 집례자가 복토를 시키는 동안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다.

6. 하산 준비

예배가 끝나면 유족들을 권하여 속히 하산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다음 날 와서 보면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오신 손님들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 좋다.

7. 마지막 위로 예배

가정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장례식의 모든 행사는 끝나게 된다.

구역공과

<11월분①>

창세기 공부

제 13과

바로를 축복한 야곱

본문 말씀/창세기 33~35장, 47~50장
읽을 말씀/창세기 47:7-10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르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 47:7-10)

1. 잘못 찾았던 땅(창 33장~35장)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기를 이용하는 라반의 수중에 있으면서도 많은 자녀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에세도 만나 화해를 하여 생의 가장 큰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한 사람으로 20년만에 고향인 가나안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레었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과거의 약속(창 28:19-22)도 잊은 듯 성공했다는 자신감에만 사로잡힌 채 세경성에 살림살이를 펼쳐 놓았습니다. 장막도 짓고 짐승의 우리도 짓고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가 정착하여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엘이었습니다. 은혜받은 초년생이 생각없이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된다, 성공한다 할 때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①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고 교만하거나 덤비지 말고 겸손하고 침착하여야 하며, ② 인간은 항상 약하고 무지한 것을 알고 잘 될 때에 악마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야곱은 잘못된 정주(定住)로 인하여 귀여운 딸이 창녀같이 되고 아들들은 무서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다시 원수가 생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생활의 안정을 잃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4장 참조).

그리하여 야곱이 다시 어려움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라」고 그의 갈길을 지시하여 주셨습니다(창 25:1). 세상 재미에 도취되어 하나님

의 집(베엘)을 멀리한 야곱에게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품의 귀중성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그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방인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세례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명령하는 것으로 옷을 바꾸어 입듯이 새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2. 바로 앞에 선 야곱

야곱이 배다른 아들들을 가지게 된 것은 집안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소생들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노예로 팔리었고 야곱은 아들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은 쓰라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땅으로 이주시켜어 그곳에서 성숙한 민족이 될 때까지 기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흉년에 기근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들을 애굽나라에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은 미리 애굽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어 후한 대접을 받고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왕에게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였습니다. 백발이 된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① 바로를 축복했고, ② 자기의 인생 나그네길을 소개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는 날은 얼마 못되면서 자신의 허물과 세상의 악과 싸우느라고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축복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생 중에도 이같은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래의 소망을 가진 여유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히 11:13-16).

토 의

- (1)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의 책임과의 관계를 말해 보세요.
- (2) 성도도 세상에서 고난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가 축복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역공과

<11월분②>

창세기 공부

제14과

꿈을 가진 요셉

본문 말씀/창세기 37, 39장

읽을 말씀/창세기 37:5-11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창 37:5, 11)

1. 꿈을 가진 요셉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으로 열한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두 아들 중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었고, 요셉은 이 꿈을 잘 간직하였습니다.

그의 꿈은 장차 모든 형제들을 자기가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창 37:5-11). 이 꿈은 요셉의 과대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요셉은 이 꿈을 믿음으로 받아 인내로써 이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 각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모두 축복의 꿈입니다(약 1:17; 마 7:11). 우리는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요, ② 어떤 이상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때문이요, ③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믿음의 충성이 모자라기 때문이요(노력), ④ 진행과정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버트 슬터 목사는 그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설교 가운데서 어떤 성공적인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세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까?” 둘째는 “이 일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 세째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세가지

질문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해 나갈 때에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빌 4:13).

1. 믿음의 투쟁(창 39장)

꿈을 가진 요셉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방해합니다(엡 6:10-13).

요셉은 이 꿈을 이뤄 가는데 크게 세번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첫번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두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세번째는 억울한 투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여 애굽의 국부총리가 되어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같은 어려운 시험을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였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를 줄 알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억울함이나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는 약자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었고 천지의 주재이신 선하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피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람은 약한 것을 알고 죄의 유혹에 대하여 성경은 죄에 대하여 피하라고 하십니다(딤후 2:22; 딤후 6:11; 고전 6:18; 시 1:1-2). 특별히 물결에 대한 욕심과 혈기와 이성에 대한 시험은 미혹성이 강하여서 자리를 달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의 인내가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억울해도 원수갚지 않았고 고생스러워도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모든 일에 인내합니다(롬 8:24, 25; 록 21:19; 히 10:36).

토 의

- (1) 성도의 꿈은 불신자가 가지는 꿈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 (2)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설립 25주년 기념

응 변 대 회 성 료



교회설립 25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념행사로 응변대회를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9월 23일 본당에서 17명의 연사가 열변하는 가운데 은혜스럽게 마쳤다. 이번 응변대회는 선교와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각기 연제를 정하여 나름대로 강조하였다. 연사들의 분포는 중등부 4명 고등부 5명 산전부 1명 대학부 2명 청년부 3명 장년부 2명이었으며, 심사에는 심사위원장 김의철 장로, 심사위원으로는 황기성 장로, 송순일 장로, 위영환 장로, 조현명 장로, 서동식 집사등 여러분이 맡았었다.

심사평에서 김의철 장로는 세밀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자상히 평하였으며 내용이나 수준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았다고 하였다.

결과로는 단체 1등에는 중등부에 2등에는 장년부가 차지하였으며 개인 특등에는 「복음의 불을 밝게 켜 들고」라는 연제로 열변한 장년부의 김연이 씨가 받았고 우수상에는 「아! 이 피」의 연제를 갖고 나온 중등부 2학년의 홍영신양이 차지하였으며 우수상에는 2명으로 「빛과 소금」의 연제의 대학부의 김정애양과 「우리의 소원은?」으로 열변한 중등부의 김명환군이었으며 장려상에는 중등부 박성호(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청년부 이대용(오직 이 길로……) 고등부 오정근(나를 보내소서)군이 각각 차지하였다.

교사 단기훈련 가져

교사 자질향상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감 고취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본당에서 12부 주일학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이순한 목사(용산 남부교회 시무)를 모시고 「신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의 제목으로 은혜스럽게 가졌다.

이번 훈련은 지도자양성부와 함께 필히 이수해야 할 훈련과정이며 3일간 계속 참석하여 훈련을 받은 교사에 한하여 교사 단기훈련 수료증을 발부하였다. 더욱이 이번 훈련의 참석여부와 시험결과가 교사 개인의

자질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사 자질향상과 사명감 고취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훈련의 기회가 교사들을 위하기 보다,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을 위해 1년에 4차례 정도는 꼭 있어야 한텐데 금년들어 처음으로 가진 행사니만큼 의의가 컸고 매우 좋은 기회였다.

윤영탁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아

이승근·윤영철·김중석·이준교 전도사
강도사 인허도

10월 10일 왕십리교회에서 열린 수도노회에서 전 청년부 지도를 맡았고 현재 성경학원 강사로 수교하는 윤영탁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윤목사는 중현교회에서 자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외국유학까지 하여 현재 중회신학교 교수·신학부장으로 후배양성에 전념하고 계시다.

또한 본교의 이승근(고등부 지도), 윤영철(대학부 지도), 김중석(제이성가대 지휘), 이준교(청년부 지도) 전도사들도 이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추계 성례식 성료

금년도 추계 성례식이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롬 14:7-8)라는 주제로 문답(9월 28~29일)이 있었고 세례식은 29일 저녁에 그리고 성찬식은 10월 1일 주일에 각각 있었다.

이번 성례식의 문답자는 학습 남 61명 여 119명 세례 남 72명 여 138명, 유아세례 남 29명, 여 33명, 입교 남 3명 여 9명 개종 남 1명 여 2명으로 남 166명 여 301명으로 합계 467명이었다.

당회장 목사의 인도로 베풀어진 성찬은 I~4부 전체 3,185명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회개·감사·간구·결집하는 자세로 참여하였다.

유치부 2부 예배 실시

지난 9월 첫 주일부터 주일학교 영아부가 장소관계로 3부로 나뉘어 예배드리는데 이어, 이번에는 유치부(부장 김의철 장로)가 역시 장소문제로 한번에 학생수용이 불가능하여 지난 10월 첫 주일부터 2부예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I부 예배는 오전 9시에, II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각각 드리고 있다.

장로투표—11월 12일에

당회에서는 전교인수에 비해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장로수를 보완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각기관 지회의 업무량을 감당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10월 10일 노회에서 장로 10명을 새로 세우기로 승인을 받아 11월 12일(주일) 작부(1·2·3·4 부) 예배시에 투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치리장로직은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교인들을 대표하여 당회장을 도와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게 되는데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만30세 이상된 남성으로 흠없이 5년을 지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담전 3:1-7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선거는 당회가 교회에 미리 광고하여 작성한 시간에 출석한 대로 개최하여 투표자수의 3분의 2이상의 가(可)로써 정한다. 투표권은 우리교회에 등록된 무혼의 세례교인은 누구나 가지며 그 방법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결정이 안되면 2차투표까지 실시하게 된다.

기도원 전담교역자 초빙

지난 당회에서는 기도원의 원활한 운영과 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적절히 공급해 주기 위해 전담교역자를 모시기로 하여 부산 중구 수정중앙교회에서 시무하시던 한영철 목사(사진)를 초빙하였다. 총회신학교를 졸업하신 한목사는 사모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시고 있다.



해외교회 자매결연—맥클린 한인장로교회

당회(9.26)에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맥클린 한인장로교회(당회장 김상목 목사)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는 4교회로 늘어났다.

건축위원회 사무실 이전

당회에서는 그동안 좁아서 불편을 가져 오던 건축위원회 사무실을 여성성가대실로 이전하여 그곳에서는 건축헌금만 접수하기로 하고 설계사무실은 교회내에 장소가 없어서 아세아 빌딩(목정동 27-10) 4층 501호(11평)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설계작업에 들어갔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1978.9.3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예 배	주일 낮	I 부	158			317			475		
		II 부	372			983			1,355		
		III 부	344			691			1,035		
		IV 부	107			212			319		
	수일 저녁		695			1,155			1,850		
주 일	삼 일		170			464			634		
		I	14			18			32		
		II	36			56			94		
	영 아 부		104			94			198		
	유 치 부		115			79			194		
학 교	유 년 부		140			141			281		
	초 등 부		151			153			304		
	중 등 부		168			130			298		
	고 등 부		145			141			286		
	대 학 부		89			86			175		
회 교	청 년 부		64			72			136		
	장 년 부		27			264			291		
	노 년 부		25			70			95		
	산업 교육부		33			75			108		
	계		2,957			5,201			8,158		
			예 배			학 교			회 교		
			I	138,260		II	346,560		III	351,900	
			IV	83,645		일	3,915,710		조	377,700	
			정	3,464,000		사	48,000		일	43,600	
			생	5,965,499		동	2,760		산	65,690	
			죽	24,870		유	36,715		년	33,210	
			초	30,285		중	70,640		등	43,235	
			고			대			학		
			계	15,042,279		남/여					

□ 신급별 교인통계 □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 세 학 습 원 인
2,888	2,711/4,019	1,478/2,705	416/321
			264/331
			553/662

토막소식

*...교회에서는 10월 철야기도회를 6일 충현기도원에서 은혜 중 가졌으며 교통편은 당일 3회에 걸쳐 교회버스가 운행 조달하였다.

*...어린이 새신자부는 8일 새신자부실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졌고 장년 새신자부에서는 8일 시청각 교육을 했다.

*...영아부에서는 1일 3학기 성경공부 복습을 하였다.

*...유치부는 1일 3학기 시상을 하였으며 13일에는 충현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8일에는 연구수업을 15일에는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유치부실에서 각각 가졌다.

*...유년부에서는 1일 3학기 성경시험, 7일에는 성균관 대학에서 열린 수도노회 주최 그리기·글짓기 대회에 참가했으며, 27일에는 교사기도회 및 학습평가를 충현기도원에서 가졌다.

*...초등부는 4학기 캠페인을 「이웃을 돕자」로 정하여 실시하고있으며 1일 3학기 성경시험, 2일 충현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 15일은 성경퀴즈대회, 29일에는 해외선교사들께 편지쓰기를 실시한다.

*...중등부는 1일 3학기 성경시험을, 15일에는 서울역전으로 노방전도를, 22일에는 김중석 강도사를 모시고 학생특강을 가진다.

*...고등부는 3일 학생체육대회를 영희국민학교에서, 13일에는 기도원에서 교사철야기도회를 22일에는 남산으로 노방전도나간다.

*...산업전도교육부는 8일 독서발표회를, 22일에는 성곡 감상회를 유치부실에서 가진다.

*...대학부는 1일 교회 주변으로 노방전도를, 20일에는 충현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청년부는 6~7일 양일간 반장 및 임원 수련회를 가지며, 9일에는 도봉산으로 산상예배를 다녀왔다.

*...장년부는 20일 교사기도회 및 특강을, 17일에는 속리산에서 교사친교회를 가졌다.

*...노년부는 19일 교사친교회를 15일에는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의 특강을 들었다.

마침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설교집 제 1 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충현교회 출판위원회 편 크라운판 80모조 400원
 고급양장 값 3.000원
 반 양 장 값 2.500원
 총판/정음서팀 (776-7897)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기다리던, 김창인 목사가 힘있게 외친 서론 일곱편의 설교가 우선 한권의 책으로 십일월 초순께 출간,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에게 이 설교집은 지금 막 강단에서 흘러 나오는 은혜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구입합시다. 친구·친척·친지 또 해외에 계신 성도들에게 성탄선물로 보냅니다.

■ 목회에 승리를 거두고 계신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이 우리 교계에 나오게 됨은 기쁜 일입니다.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그분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세계 각국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애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경신학자 박운선 목사>

■ 대중적이면서도 평이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늘 역사하였습니다. 그 설교들이 이제 그분이 강단에서 외친 그대로 구밀이 없이 문서화되어 나오게 됨은 우리 교계에 참으로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충신대학장 김희보 목사>

편집하고 나서

*...무덤덤 여름도 다 가고 결실의 가을을 맞는다. 누구나 가을이던 결실을 생각하게 된다. 심심치않게 우리들의 입에서도 결실을 이야기하지만 어찌 신앙의 인격의 결실이 한 계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여름에 실시했던 여름제철학교 평가를 교육자의 입장에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계획·진행자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것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번 여름제철학교는 특히나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되었기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더욱 이번 평가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여

름행사의 목적과 그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꼭 유익했을 줄 안다. 바라건대 내년부터는 보다 좀 더 여름행사의 의의와 그 근본 취지를 살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럴때에 그야말로 가을에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손봉호 박사가 청년부에서 특강한 내용을 풀어 소개한다. 문화의 달이라고 하는 10월에 우리도 한번쯤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문화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고 있나를.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준교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계원
 이사례

주간/이준교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계원

기자/성주진 정윤영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간충현

10월호

제 6 권 통권 제 58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10월 22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준 교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0월1일 주일예배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배플
었다.



금년도 추계 성례식이 배플어졌다. 9월26·27일 문답을 거
치고 27일에는 세례식이 있었다.



교회는 육군○사단 지역의 3,200여명에게 지난 9월23일합동
세례식을 배플었다.



고등부는 제4회 선교음악회를 9월30일(토)본당에서 가졌다.
(지휘: 남궁 은 선생)



추석을 맞아 합동추모예배가 9월16일(토)중현동산에서 있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아무 말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무엇이기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
놀라운 중의 놀라운,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은 완성을 얻는 것.
사랑은 오래 견뎌요,
인내요 친절인 것.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
사랑은 변화시키는 것.
가장 진부한 것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경이롭게, 우아하게.
사랑은 이타적인 것.
받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사랑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것.
사랑은 성실하고 충실한 것
언제나 믿으며
교활이 없고 정직하며,
결코 속이지 않는 것.
그렇다, 사랑은
사람이 무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
사랑은 영원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신성한 것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실로암
못가에서